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종민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600만명 돌파

## 순천시, 잠월드와 4차산업혁명 워크숍

청소년·청년 60명 참여·전시체험 콘텐츠 등 적용 계획

순천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과 청년 60명이 참여한 '잠월드와 4차산업혁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 주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85억원 규모로 해동면 대안리 일대에 건립 중인 순천만잠월드의 전시체험 콘텐츠와 건축물 구성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됐다.

특히, 워크숍 참가자를 잠월드의 실수요자인 초·중·고 청소년과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현장 의견을 담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워크숍은 9시간 동안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소개와 전문

가 강의, 워크숍 방식인 퓨처히어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2부에는 '퓨처히어로 순천기지'라는 주제로 잠월드와 국가정원 등 순천시 미래산업에 대해 참가자가 직접 상상하고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대상은 시와 태양광을 이용한 방어로봇을 상상한 효천고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돌아갔다.

순천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와 결과물을 현재 진행 중인 잠월드 전시체험 콘텐츠와 건축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순천=김종영 기자

## 세계절축제 등 개최...개장 3년만 쾌거

### '겨울 별빛축제' 내달 7일까지 이어져



루 평균 4,000명 주말은 12,000명 씩 별빛의 열기로 가득한 순천만국가정원을 찾고 있다. 이날 순천만국가정원은 관람객

장한 양종섭씨(광주시, 45세)는 "순천만국가정원을 밝힌 불빛들과 화려한 퍼레이드까지 넘치는 볼거리로 추위를 이겨보려 축제를 찾았는데, 크리스마스에 이런 행운까지 얻게 되어 신타에게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매우 기쁘고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불이 오고 꽃이 피게 되면 꼭 다시 찾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조충훈 순천시장은 "얼마 전 그린월드어워드 금상의 쾌거에 이어 순천시에 또 한번 기쁜 일이 생겼다"며 "순천만국가정원 600만 관람객 방문을 디딤돌 삼아 순천시를 정원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순천의 정원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축제는 다음달 7일까지 깊은 겨울밤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만국가정원이 24일 저녁 8시경 600만번째 관람객이 입장해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작년 방문객인 540만명을 훌쩍 뛰어넘은 기록이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신영옥, 폴 포츠, 조수미 등 세계적인 성악가와 함께하는 정원 교향악축제, 국제자연환경미술제 등 정원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행사들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정원관광의 장을 여는 4계절 축제를 시작, 봄날의 봄꽃축제부터 여름의 물빛축제, 가을의 정원갈대축제, 겨울날의 별빛축제까지 사계절 이어지는 축제와 문화행사를 통해 전국 관광객들의 관심을 순천으로 집중시켰다.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은 긴긴 '겨울 별빛축제'를 지난 8일 시작해 매일 저녁 따뜻한 불빛을 밝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른 한파로 손발이 팽팽 어는 추위 속에도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은 평일은 하

## 광양시, '우수형 열린

### 어린이집' 2개소 선정

광양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광양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과 인테르센어린이집 2개소가 2017년 우수형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시 접견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 박선미 광양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원장, 안영선 인테르센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과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린어린이집'이란 구조와 운영적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우수형은 부모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발전된 형태를 말한다.

이번에 우수형으로 선정된 광양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과 인테르센어린이집은 전 분야에서 부모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기관 부모민족도 조사 실시'와 '삼위일체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상장과 현판 수여 이외에도 각종포상과 정부지원 우선선정, 모니터링 일정기간 제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광양=김충권 기자

## 화순군,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

60억 투입 화순읍 서태리 등 주민불편 해소

화순군이 '서태리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마무리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악취 발생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27일 화순군에 따르면 2015년부터 60억원을 투입해 3년 만에 화순읍 서태리·주도리, 남면 운산리 일원의 관로 4.8km, 배수설비 289

곳의 정비를 완료해 3개 마을 289가구 4500명의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완전 해소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빗물과 오수를 하나의 관으로만 처리하던 방식에서 빗물과 오수를 따로 분리해 오수만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는 사업으로 화순전으로 방류되던 생

활하수를 사전에 차단, 하천 오염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어 악취와 해충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이와 함께 공공하수처리구역임에도 하수관로가 미 정비된 화순읍 일원과 도곡면 대곡리 일원에 사업비 각각 18억과 50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3년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 나주시, 혁신도시 '먹는 물' 주민 신뢰 제고에 팔 걷어

보건환경연구원 정밀 검사 의뢰 등

나주시는 빗가람동 아파트 일부세대 샤워기 등 정수필터 황색화 및 수도물 변색 현상과 관련해, 성탄절 연휴 비상근무 돌입 및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정밀 검사를 추진하는 등 주민의 민원 해소와 음용수 신뢰 제고를 위해 민원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민원이 발생한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나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즉각적인 원인규명을 위해 20일,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 현장을 방문 저수조 임구 및 세대 내 수도꼭지 등에서 채수를 실시했다.

이날 나주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현장 수질 측정 결과를 통해 탁도, 진류염소, pH 등 6개 항목에 대해 '이상 없음'을 안내하는 한편, 익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납, 비소, 크롬 등 14개 항목에 대한 먹는 물 수질 정밀 검사를 의뢰, '적합' 판정을 받고 해당 아파트 계수관에 검사 결과를 게시하며,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샤워기 정수필터 황색화가 지속되고 일각에서는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 추세다.

나주시는 이 같은 불신을 종식하고자, 이날 말 도시 내 전반에 걸친 수질 검사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에 전격 의뢰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28일, 간부회의를 통해 "음용수에 대한 주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보다 정밀한 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관련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방문과 수질 검사를 통해 주민들이 먹는 물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적극 당부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28일부터 29일까지 빗가람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13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서 채수를 실시, 탁도, 황산이온, 포름알데히드, 사염화탄소, 벤젠 등 총 59개 항목에 대한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광양 해피데이, 소통창구 역할 특출

광양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소통·공감 시책중의 하나인 광양 해피데이가 지난 12월 28일을 끝으로 올 한해의 운영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해피데이에서는 8명의 시민이 방문해 ▲진상면 회두마을 마을상수도 단수민원 해결 요망,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시청요원 근무 협조 요청 등 5건을 건의했다.

이날 해피데이에서 나오는 건의사항들은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건의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예산을 확보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광양종합운동장전면하수처리장 조속한 준공, 마로산성 등산로 정비, 강남병원 뒤편 주차장 조성 등 총 16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그 중 118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또 미해결된 건의사항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는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해피데이를 꾸준히 운영해 시정에 대한 시민 민중도와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해피데이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자 시정발전 방안, 불만·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민과 소통의 날로 매월 마지막 화요일 광양시청 시민접견실에서 열리고 있으며, 2018년도 해피데이 운영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광양=김충권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문화는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